

KDMT 48208998

9/11.5 / 1
碩士學位請求論文
指導教授：洪始煥
2008.2

濟州島의 地政學的 考察

A Geopolitical Study of Jeju island

建國大學校 大學院

地理學科

崔 東 錫

1981

崔 東 錫의
理 學 碩士學位 請求論文을 認准함

審 查 委 員

主 審

副 審

委 員

1981 年 11 月 日

建國大學校 大學院

目 次

o 國文抄錄	1
I. 序 論	2
1. 研究目的	2
2. 研究方法과 動向	3
II. 國防·地政面에서 본 濟州島의 歷史的 背景	4
1. 三國時代	4
2. 高麗時代	7
3. 朝鮮時代	10
4. 日帝時代	12
III. 國防·地政面에서 본 濟州島의 位置價值	13
1. 數理的 位置	13
2. 自然地理的 位置	14
3. 關係的 位置	15
4. 國家安保面에서 본 位置價值	15
IV. 國防·地政面에서 본 濟州島의 特性	25
1. 島嶼로서 濟州島의 特性	25
2. 基地로서 濟州島의 地域性	29
V. 結 論	35
Abstract	36
參考文獻	38

圖 表 目 次

圖 1 . 三別抄의 移動과 元干涉下의 高麗圖	9
圖 2 . 濟州島의 關係的 位置	16
圖 3 . 韓半島 周辺의 海洋紛争 可能性	22
圖 4 . 濟州島와 東支那海의 相關圖	23
圖 5 . 濟州島 周辺의 海底鉞區	24
圖 6 . 濟州島의 地勢分類	27
圖 7 . 太平洋의 美軍基地	31
表 . 濟州島의 數理的 位置	13

國 文 抄 錄

濟州島는 우리나라 最南端에 位置하고 있는 火山島로서 位置的으로 보면 緯度 $33^{\circ}30' \sim 34^{\circ}N$, 經度 $126^{\circ}08' \sim 126^{\circ}58'E$ 로서 氣候적으로 溫暖地域에 屬한다. 그리고 自然地理的 位置에서 볼 때 島嶼的 位置에 屬하며 關係的으로는 南으로 太平洋과 東支那海로 나가는 出口에 位置하고 바다 건너 東으로는 日本과 隣接하고 西쪽으로 中共과 對峙하고 있으며 北으로는 韓半島와 相關되어 있다. 歴史的으로 볼 때 本島는 位置의 重要性으로 因해 高麗時代에는 三別抄의 抵抗地로서 그리고 日本의 植民地時代에는 日本의 對中國, 海洋方面 攻擊基地로 利用되기도 했다. 本島의 地政學的 位置價值에서 볼 때 海洋發展的인 面에서 重要하고 戰略的으로 韓半島 安保와 關聯하여 볼 때 重要한 戰略基地로서의 價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海低資源 開發을 爲한 前進基地로서의 機能을 發揮 할 수 있다고 보겠다. 이와같이 本島는 位置的으로 國家安保面에서 後方基地로서의 役割과 海洋發展面에서 前方基地로서 重要한 地政學的 價值를 갖는다

I . 序 論

1. 研究目的

오늘날 國際社會의 流動的이고 可變的인 情勢로 因한 그 影響이 直接, 間接으로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한 事實이다. Asia 大陸의 東北端에 位置한 넓이 22萬km²의 韓半島는 世界史의 實驗舞台로 아직까지 完治되지 않은채 歷史의 患部로 남아있다. 韓半島에 人類集團이 存在하기 시작한 以來 外部로 부터 많은 異民族의 侵入을 받아왔지만 우리 國民의 団合과 和合으로 鬪爭과 抵抗을 通해 克復해 냈다. 그러나 20世紀에 들어와서 2次大戰의 熱戰이 끝난뒤 잇다른 東西冷戰은 半島國家를 強大國의 會談테이블에서 決定, 設定된 專橫的 附加境界線인 38°線으로 因해 마침내 두조각으로 갈라놓고 말았다. 그 결과 6.25事變이라는 悲劇的인 同族相殘을 겪어 결국 勝者도 敗者도 없는 無意味한 結果를 가져오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後 南北韓은 休戰線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社會體制를 維持하고 있고 두개의 異質的인 理念을 存在시키고 있으며 또 두개의 Iconography가 存在하고 있다. 오늘날은 前後方이 따로 없는 國民總力戰의 時代다. 언제 다시 6.25事變과 같은 悲劇的인 事件이 일어날지 豫測할 수 없다. 地政學的인 면에서 볼 때 韓半島의 周邊情勢는 颶風圈안에 들어있으며 그 圈域에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이 보인다.

韓半島의 現勢는 美國, 日本等 海洋勢力과 蘇聯, 中共等 大陸勢力의

中間에 位置해 있다. 東西兩陣營의 冷戰의 틈바구니 속에서 生存戰略을 스스로 講究하지 않으면 안되는 絶對命題를 안고 있다. 本 研究는 韓半島의 이러한 特殊狀況에서 島嶼로서 濟州島가 갖는 地政學的 價値를 考察해 보기로 하였다.

2. 研究方法과 研究動向

本 論文을 作成하는데 있어서 對象地域을 濟州島 全域과 周邇海 域과 그리고 韓半島의 安保狀況과 周邇勢力과의 關係에서 考察했다. 그리고 研究方法으로 文書的 方法과 샘플스터디(sample study)의 方法을 利用했으며 數次에 걸친 現地調査活動을 거쳐서 本 論文을 作成했다. 濟州島에 對한 地政學 關係의 研究는 거의 없는 實情으로 洪始煥 教授의 「濟州島의 後方基地論」¹⁾과 「軍需産業 育成面에서 본 濟州島의 食品加工業 開發策」²⁾이 있을 뿐이다.

註 1) 濟州道誌 第 40 號, 1960, p149 ~ 159.

2) 陸士論文集, 1968, p88 ~ 131.

Ⅱ. 國防·地政面에서 본 濟州島의 歷史的 背景

1. 三國時代의 對內外 關係

(1) 耽羅와 百濟와의 關係

高句麗는 長壽王이 平壤에 遷都한 以來 南進政策을 써서 百濟와 漢江流域에서 자주 衝突을 일으켰고 百濟의 蓋鹵王도 죽인 일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의 아들 文周王은 漢城 愬進(公州) 遷都하여 나라의 命脈은 維持하면서 新羅와 結托하여 高句麗에 對抗하려고 軍備強化에 全力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國際情勢가 急變하여 졌으므로 隣近國인 耽羅로서는 一大威脅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耽羅王은 文周王 2年(476年)에 使者를 百濟에 보내 臣事하기를 請하였으므로 百濟朝廷에서는 耽羅國使者를 恩率³⁾에 拜하고 耽羅王은 佐平⁴⁾에 拜하여 耽羅는 百濟에 隸屬시켰다. 百濟에서는 耽羅를 耽牟羅라 號稱하였다. 그러나 耽羅는 國王이 統治하는 自治國이었으므로 百濟에 對하여 敬事하거나 貢賦를 納을 誠意는 없었다. 그런 까닭에 20餘年後인 東成王때 이르러 耽羅를 征伐하려고 武珍州(光州)에 이르렀다. 그 結果 耽牟羅王은 使者를 通해 謝罪하고 屬國의 禮를 지킬 것을 盟誓함으로써 完全히 百濟에 併合되었고 以後 百濟가 羅唐聯合軍에 依해 滅亡될 때 까지 계속하여 隸屬되었던 것이다.

註 3) 恩率 : 三品官職名.

4) 佐平 : 一品大臣의 位.

(2) 耽羅와 高句麗와의 關係

耽羅와 高句麗는 公的關係는 없었으나 兩地域間에는 서로 交易이 行해졌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耽羅와 高句麗는 政治와는 關係없이 兩地域間에는 서로 밀접한 關係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런 關係로 因해 百濟가 南遷 郎時로 耽羅와 高句麗와의 關係를 막기 爲해 耽羅를 隸屬시켜 버리기에 이른 듯하며, 또 百濟의 東成王이 耽羅를 征伐하려고 나선 理由도 耽羅가 百濟에 對해 貢賦만을 不履行할 뿐 아니라 高句麗와는 秘密히 親善關係와 交易關係를 持續한 까닭인것 같다. 그러므로 東成王이 철저히 耽羅를 屈服시켜 併합하고 高句麗와의 關係도 斷絶시켰던 것으로 짐작되는 것이다.

(3) 耽羅와 統一新羅와의 關係

百濟가 亡한 다음해인 新羅 文武王 元年 (662年)에 耽牟羅國王 佐平 徒冬音律이 新羅에 來降하였으므로 新羅에서는 百濟의 舊官職인 佐平職을 다시 그에게 封하였으며 이로부터 耽羅는 다시 계속하여 新羅에 敬事하였다.

(4) 耽羅와 日本과의 關係

耽羅가 日本과 처음으로 通聘한 것은 新羅 文武王 元年 辛酉 (662年)의 일이었다.

日本書記 齊明紀에 依하면 齊明天皇 6年 5月에 耽羅의 王子 阿波岐가 처음으로 日本에 入朝하였고 또 同書 天智紀에는 天智天皇 8年 (668年)에 耽羅 使者가 와서 五穀種子를 求하므로 이를 주었다고 하였으며 天武天皇때 (698 ~ 707年)부터는 國內外的 事情上 耽羅使者

의 入朝를 謝絶하였다. 耽羅의 使者가 처음으로 日本에간 時期는 百濟가 亡한 (660年) 다음해이다. 이 때는 百濟王族 福信이 百濟 復興運動을 爲하여 擧兵하였고 日本에 가있는 義慈王의 王子 豐을 맞아다가 王을 삼고 日本과 高句麗에 援兵을 請하여 唐軍에 對抗하여 그 勢力을 크게 떨치던 때였다. 이런 時期에 百濟의 屬國이었던 耽羅가 百濟와 오랜 友好關係에 있던 日本에 入朝한 것은 時局上 重要的 理由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齊明記에 依하면 日本人 伊吉連博得이 일부러 耽羅에 와서 島民을 招慰하고 王子 阿波岐等 9人을 日本에 데리고 가서 入朝시켰다고 하였다. 이런점으로 볼 때 日本이 百濟復興運動에 協力하고 있기 까닭에 耽羅에도 이 運動에 協助하도록 說得하기 爲하여 耽羅에 온 듯하며 또 한가지는 日本이 百濟에 派兵함에 있어 濟州島를 臨時基地로 使用하기 爲한 交涉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4) 耽羅와 唐과의 關係

耽羅와 唐과의 關係는 百濟가 滅亡한後 政治的으로 經濟的으로 相通하고 있었다. 經濟的인 關係는 交易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高麗 文宗時에 宋나라 蘇州에 漂着한 屯羅人의 衣冠과 官服等이 唐制와 같았던 點으로 보아 唐이 우리나라에서 물러간 以後에도 耽羅는 唐과 交聘關係와 民間人 交易關係를 계속하여 唐의 影響을 오랫동안 받았다. 唐에서는 耽羅를 擔羅라 號稱하였다.

2. 高麗時代

(1) 高麗의 藩國時代 (太祖 21年~肅宗 10年)

高麗에는 太祖 18年에 新羅敬順王이 投降하였고 同 19年(936年)엔 後百濟의 神劍도 投降하였으므로 이해에 後三國이 完全히 統一되었다. 그 後 太祖 21年(938年)에 이르러 高麗에서는 新羅襄浪期 以來 獨自의 行政을 하고 있는 耽羅王에 對해 新羅時代의 舊封爵이었던 星主職을 封한즉 耽羅에서는 隸屬을 拒絶하여 受諾치 아니하였다. 이때 三國을 統一한 高麗는 集權的 封建國家로 發展시키려고 노력하는 때이므로 한개 小島國인 耽羅만이 自主獨立으로 容認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麗廷에서는 軍士를 보내어 이를 討伐한 즉 耽羅王 高自堅이 屈服하고 太子 末老를 高麗에 보내어 入朝시켰다.

(2) 高麗의 郡縣時代 (肅宗 10年~元宗 15年)

肅宗 10年(1105年) 麗廷에서는 屯羅라는 國號를 廢止하여 郡을 삼고 耽羅郡이라 改稱하였다. 이로써 耽牟羅國은 解體되고 高麗國의 一郡이 되어 麗廷의 官史에 依하여 統治되었다. 그 後 18代 毅宗時에는 耽羅郡을 縣으로 降等시켜 縣分官을 두었고 熙宗時에는 石淺村을 歸德縣으로 改稱 昇格시켜서 當時 全島內의 縣村數는 모두 14個였다. 23代 高宗時에는 耽羅를 濟州라 改稱하고 副使와 判官을 두어 다스렸으며 또 濟州에는 宋나라 船舶과 倭船들이 자주 寄泊하므로 이를 監視하기 위해 防護別監을 두었는데 24代 元宗때에는 以上 外國船舶들의 寄泊監視를 더욱 強化하기 爲하여 他道의 例에

따라 濟州에도 防護使를 두었다.⁵⁾

(3) 三別抄⁶⁾의 入據

蒙古의 成吉思汗은 西紀 1200年頃에 일어나 東伐西征하여 유럽과 아시아大陸에 건친 大帝國을 建設하였는데 그의 孫 世祖 忍心烈은 高麗 高宗18年(1232年)부터 同45년까지 20餘年間に 걸쳐 6回나 大軍을 보내어 高麗에 侵入하였다. 그러나 高麗는 江華島에 遷都하여 蒙古에 對抗하였다. 이에 대해 蒙古는 懷柔策을 써서 同年46年 高麗와 講和를 맺는데 成功했다. 그러나 蒙古는 계속 高麗에 對해 江華島에서 出陸할 것을 要求했으나 高麗는 不應하고 防備를 強化하였다. 이렇게 高麗와 蒙古사이에 江華島에서 出陸하는 問題에 對해 主張이 對立되어 오던중 元宗은 同年 10年 蒙古의 要請으로 燕京⁷⁾에 갔다가 그 다음해 5月 歸國途上에서 松都에 遷都할 것을 決定하고 또 三別抄의 解散도 命令하였다. 이에 不滿을 품은 三別抄의 裒仲孫 등은 部下를 이끌고 江華를 封鎖한 後 蒙古와 高麗의 元宗政府에 對해 反旗를 들어 王族 承化使 溫을 새로 王으로 삼고 反蒙政權을 樹立하였다. 그러나 江華에서 오래 버티기 어려움을 느낀 三別抄軍은 全羅島의 珍島로 내려갔다. 그 이유는 戰略적으로 볼 때 珍島는 江華島보다 有利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1270年 8月 珍島에 入據한 三別抄軍은 龍藏城을 쌓고 宮殿을

註 5) 韓到文 : 耽羅實錄 韓進文化社, 1973, p167~170.

6) 三別抄 : 左別抄, 右別抄와 神義軍으로 編成된 夜別軍의 別名.

7) 燕나라의 서울, 지금의 北京.

營造하여 하나의 都城을 이루었다. 그 後 三別抄는 勢力이 매우 強해 南海岸 一帶를 掌握하고 勢力을 떨치다가 1271年5月 蒙古·高麗政府의 聯合軍에 依해 珍島가 陷落되고 그 中心 人物의 大部分을 잃게 됨으로써 그 戰力이 크게 弱화되었으나 그 餘衆은 金通精의 指揮아래 濟州島에 根據하여 抗戰을 계속하였다.(그림 1) 그러나 物資의 補給을 얻지 못하고 蒙古軍의 優勢한 火器를 當하지 못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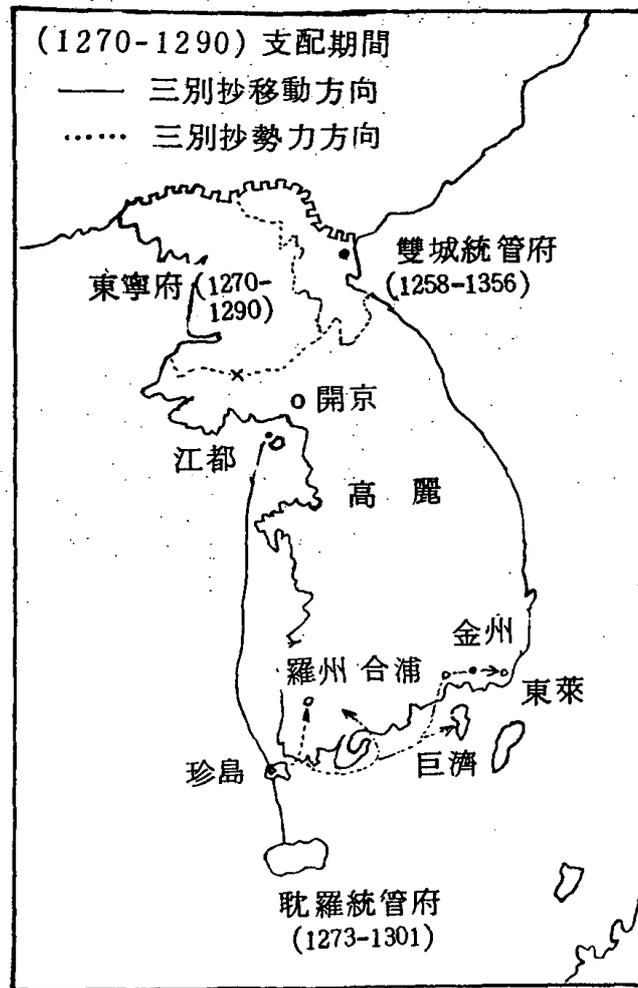


그림 1. 三別抄의 移動과 元干涉下의 高麗圖 (韓國通史, p179)

1273年 드디어 濟州島는 陷落되고 말았다. 그리고 蒙古는 三別抄를 平定한 後 耽羅國 招討司를 設置하고 뒤에 軍都都達魯花赤總管府라고 고쳤다가 1284年(忠烈王10年) 軍安撫司라 改稱하여 蒙古의 直轄地로 만들었다. 耽羅를 直轄地로 삼은 것은 日本과 南宋을 攻略하는데 있어서 地理的인 重要性和 牧馬基地로 하려는데 있었다.⁸⁾

3. 朝鮮時代

李氏朝鮮은 建國初부터 強力히 中央執權化政策을 썼으므로 이때까지 外地로만 取扱하여 疎外되어 오던 濟州에 對해 그 態度와 觀念을 一變하여 内地(本土)化하는 政策으로 臨하였던 것이다. 太宗때에는 耽羅의 오랜傳統인 星主와 王子職이 廢止되어 濟州는 中央集權下의 一個地域이 되었다. 國家의 이 地方에 對한 施政方針과 對民政策은 濟州가 南海上의 重鎮이므로 倭敵防衛에 臨하게 하였다.

그리고 世宗과 世祖, 이 두 王代에 와서 濟州의 防衛體制 및 體系가 確立되었다. 世宗時에는 各防護所에 防戍軍을 配置하였으며 沿海地方 要所의 山上에는 烽火台도 設置하였다. 世祖때에는 濟州에 鎮을 두어 本州에는 中翼, 族義는 左翼, 大靜은 右翼으로 하였고 兵馬水軍節制使로 牧使를 겸하고 官으로는 監牧節制都尉를 겸하게 하였다.⁹⁾

本島에는 朝鮮時代に 들어서면서 부터 빈번히 倭賊의 侵入을 받기

註 8) 韓 勵 : 韓國通史 乙酉文化社, 1970, p178~180.

9) 濟州年鑑(1977) : 韓國年鑑社, p.41.

시작했다.

朝鮮이 開國된 直後 약 10餘年間은 倭賊의 侵犯이 드물었으나 太宗時에는 5回나 계속적으로 侵入한 것을 비롯하여 그뒤 各王代에도 계속 侵入하였다.

그러므로 濟州防衛는 그 對象이 倭賊들이었으며 또 그들은 沒海地方에 자주 나타났으므로 항상 이에 對備하여야 했다. 그래서 世宗 때에 倭賊에 對한 防禦體制를 確立하고 倭賊이 寄泊하기 쉬운 竹島와 牛島의 近接地인 遮歸防護所와 水山에 築城하고 環海要所 22個所에는 烽火候望所도 新設하였다. 中宗初에는 三浦에서 追放된 三浦倭奴들이 濟州에 侵犯할 憂慮가 있으므로 牧使 張琳으로 하여금 7個所의 防護所 中 朝天館에 別防, 明月의 東海, 西歸等地에 築城하였고 後에는 禾北과 慕瑟浦에도 築城하였다. 倭賊들이 우리나라의 沿海地方과 濟州에 出沒入寇했던 것은 오랜 옛적부터의 常習的인 行爲였으나 特히 世祖時代부터 宣祖時代의 壬辰直前까지는 더욱 甚하였다. 그 理由는 日本은 이 時代가 戰國時代였으므로 國內의 混亂으로 生計를 잃은 沿海民들이 우리나라와 明나라에 侵入하였던 것 같다. 濟州에 侵入한 倭寇事件 中에서도 明宗 7年의 川尾浦倭亂과 同 10年의 乙卯倭亂은 敵의 數도 많았고 軍勢가 強했으며 擊退에 많은 時日이 要하였을 뿐 아니라 軍民中에 死傷者가 많이 난 前無後無한 大倭變이었던 것이다.¹⁰⁾

註 10) 韓到文, 耽羅實錄, 韓進文化社, 1973, p175 ~ 176.

4. 日帝時代

日本은 1910年 韓半島를 植民地化하여 우리나라에 對해 植民地 政策을 展開시켜 나갔다. 日本은 植民地를 擴大할 目的으로 滿洲事 變(1931年)을 일으켜서 植民地化하는데 成功하였다. 그 後 日本 은 中國大陸을 占領하기 爲해 中日戰爭(1936年)을 일으켰다. 그 결과 韓半島는 日本의 大陸侵略을 爲한 兵站基地로서의 機能을 擔當 하게 되었다. 그리고 日本은 太平洋戰爭(1941年)을 일으켜서 그 들의 勢力을 海洋으로 擴大해 나갔다. 그로 因해 日本은 韓半島를 爲한 後防基地化하여 各種 軍需工場을 關北地方 一帶에 建設하였다. 그리고 濟州島에도 日本은 中國本土와 東支那海 方面 攻擊을 爲한 軍事基地로서 本島의 南海岸에 位置한 孛瑟浦에 飛行場을 建設하여 渡洋爆擊基地로 利用하였다. 이 點에서 볼 때 日本은 本島를 對中 國, 對東支那方面 攻擊을 爲한 前方基地로서의 位置價值를 利用했다고 볼 수 있다. 本島에는 360餘個에 達하는 寄生火山이 分布하고 있 는데 日本은 寄生火山에 人功적으로 洞屈을 파서 對空砲를 設置하여 美軍의 爆擊에 對備하였다.

Ⅲ. 國防・地政面에서 본 濟州島의 位置價値

1. 數理的 位置 (mathematical location)

우리나라 最南端 海上에 있는 濟州島는 우리나라 最大의 島嶼로서 緯度 $33^{\circ}30' \sim 34^{\circ}N$, 經度 $126^{\circ}08' \sim 126^{\circ}58'E$ 까지 걸친 數理的 位置를 이룬다. 이와같은 數理的 位置로 因해 本島는 亞熱帶性에 가까운 氣候를 이루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南國的인 風趣를 자아낸다. 本島는 北으로 木浦와의 距離는 불과 91 마일이고 釜山과의 距離는 168 마일이며 日本의 對馬島와의 距離는 150 마일이다. 韓半島와는 相對해 있고 西南쪽은 東支那海에 면해 있다. 本島의 中心都市인 濟州市와 緯度가 비슷한 地域은 日本의 후쿠오카市, 이라크의 바그다드, 모로코의 카사블랑카, 미국의 애틀란타 等이며 우리나라 標準時 子午線과 約 1° 의 差가 있다.(表)

<表>

○位 置○ 濟州島의 數理的 位置

<本 島>

位 置	地 名	座 標	
		經 度	緯 度
極 東	南郡, 城山	$126^{\circ}56'57''$	$33^{\circ}27'10''$
極 西	北郡, 翰京, 高山(한장동)	$126^{\circ}09'42''$	$33^{\circ}17'19''$
極 南	南郡, 大靜, 하모	$126^{\circ}16'29''$	$33^{\circ}11'27''$
極 北	北郡, 舊左, 金寧	$126^{\circ}45'48''$	$33^{\circ}33'50''$

<附屬島嶼包含>

位置	地名	座標	
		經度	緯度
極東	北郡, 舊左, 飛陽島	126° 58' 20"	33° 30' 41"
極西	北郡, 翰京, 차귀도	126° 08' 43"	33° 18' 28"
極南	南郡, 大靜, 馬羅島	126° 16' 10"	33° 06' 31"
極北	北郡, 楸子, 시류여	126° 22' 10"	34° 00' 00"

자료 : 국립지리원

2. 自然地理的 位置 (physical geographical location)

本島는 自然地理的 位置 分類에 있어서 海洋的 位置에 屬한다. 海洋的 位置란 한 地域이 바다와 接觸해 있을 경우에 使用되는 것으로서 地域의 一面만 바다에 接할 경우 1海洋的 位置 (one sea location), 2面에 接한 位置 (two sea location), 3面에 接한 位置를 3海洋的 位置 (three sea location), 그 외에 여러 面에서 바다와 接하고 있는 位置를 多海洋的 位置 (multi sea location)라고 한다.¹¹⁾ 本島는 島嶼로서 海洋的 位置의 特殊形態인데 分類하면 島嶼的 位置 (insular location)에 屬한다.

註 11) 洪淳完外 2人 : 地理学概說, 營雪出版社, 1975, p240.

3. 關係的 位置 (relative location)

本島는 海洋發展面에서 볼 때 가장 南쪽에 占位하는 地理的 位置이므로 南方海上에의 海洋發展的 起點이 되는 有利한 位置價值를 지니고 있다. 太平洋地區面에서 볼 때 本島는 Asia 大陸의 東南周 辺部에 進入할 수 있는 橋頭堡的 位置가 되기도 하는 北太平洋의 最北 限界點的인 據點이 되어 있다. 따라서 本島는 太平洋과 Asia 大陸部와의 連結的인 據點이 되고 溫帶氣候와 亞熱帶氣候의 漸移地 域이기도 하다. 그리고 本島는 日本과는 가장 가깝게 隣接되어 있 고 中国本土와도 相峙되고 있는 位置에 있으므로 그 關係的 位置가 매우 重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그리고 熱帶地域인 東南 Asia 의 關係的 位置面에서도 韓半島 南쪽 에 자리잡고 있는 本島의 位置價值는 重要하다.

즉 우리나라의 海洋發展的인 面에서 本島의 位置를 評價할 때도 매우 重要하다고 볼 수 있다.

4. 國家安保面에서 본 位置價值

앞에서도 말했듯이 濟州島는 우리나라 最南端에 位置하고 있는 島嶼로서 太平洋과 Asia 大陸部와의 連結的인 據點이 되고 日本과 매우 가깝게 隣接되어 있을뿐 아니라 中国과도 相峙되고 있어서 位 置的으로 볼 때 매우 重要的 價值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 라가 海洋으로 進出하는데 있어서 本島는 海洋發展面에서 매우 重要 한 位置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最近에 들어 韓半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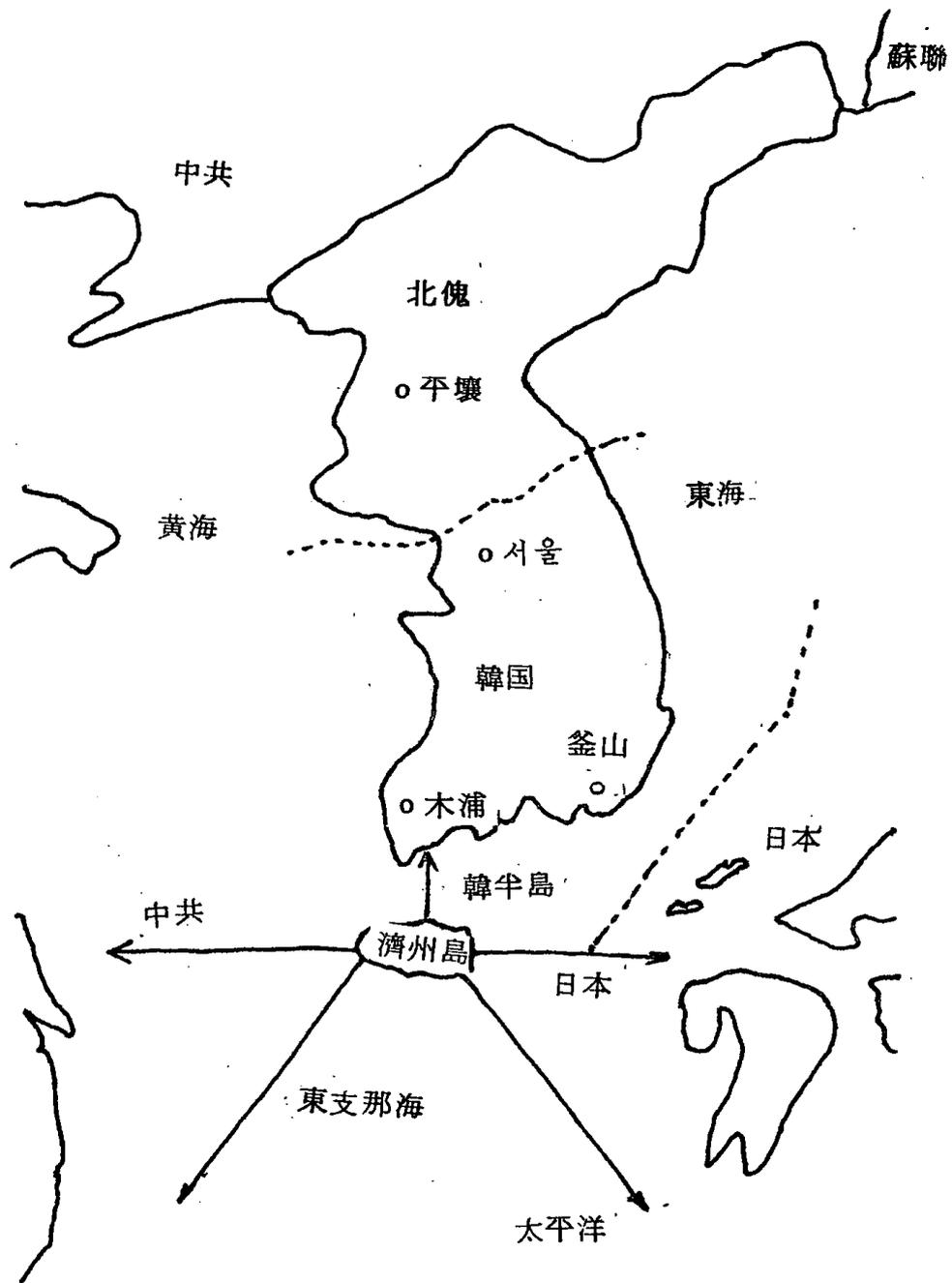


그림 2. 濟州島의 關係的 位置

周辺의 可變的인 勢力均衡의 展望을 생각해 볼 때 결코 우리에게 樂觀的일 수 만은 없다. 大陸勢力과 海洋勢力의 漸移地帶에 位置하고 있는 韓半島는 國家勢力의 強弱에 따라 歷史的인 勢力變遷을 甘受 당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不利한 地政學的 位置이기도 하다.

오늘날 世界의 交通의 中心이 海上으로 옮겨짐에 따라 우리나라는 太平洋進出에의 起點으로 自處하게 되었다.¹²⁾ 그러므로써 濟州島는 여러가지 與件으로 보아서 海洋發展의 起點에서 볼 때 가장 適合한 地域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濟州島는 海洋發展面에서 뿐만 아니라 國防地政學的인 面에서도 重要한 位置價值를 갖고 있다. 그러면 韓半島의 安保狀況과의 關係에서 本島의 位置價值를 考察하기로 하겠다.

우리나라는 아시아大陸의 東辺部에 半島로서 發達하고 있는 地理的 位置價值面에서 볼 때 매우 有利하고 優秀한 性質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³⁾

우리나라는 地政上에서 가장 好戰的인 北傀와 接하고 있다. 首都인 서울과 休戰線과의 最短距離는 약 35 km인데 이는 제트時間으로 는 약 2분에 해당되는 距離이다.¹⁴⁾ 이처럼 항상 北傀의 危脅에 直面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것에 對處하면서 安保에 모든 힘을 集

註 12) 洪始煥 : 安保面에서 본 韓國의 相關的 位置論, 安全保障 第 86 卷 第 2 號, 1978, p62.

13) 洪始煥 : 安保面에서 본 韓國의 相關的 位置論, 安全保障 第 86 卷 第 2 號, 1978, p61.

14) 任德淳 : 韓國休戰線에 對한 政治地理的 研究, 地理學 第 7 號, 大韓地理學會, 1972, p9.

中하고 있다. 外的으로는 周辺強大國의 影響力의 擴大에 의한 相關的 關係에 注力하여 왔다. 오늘날 分斷狀況에 있는 우리나라의 南北韓의 두 地域을 國防地政學的인 面에서 살펴보면 北韓은 緯度上으로 38°~44°N에 해당하며 北으로는 大陸勢力인 中共과 蘇聯과 境界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北韓은 地政學的 位置가 北偏되어 있어 中國大陸과 깊은 相關關係를 맺고 있다. 事實 北韓의 北偏的인 地政學的 位置는 國防·軍事的인 面에서 볼 때에 地形構造와 함께 中國의 滿洲地方과 매우 結合的이고 긴밀한 相關關係를 맺고 있다. 그리고 北韓의 海洋的 位置를 보면 關西地方은 海洋을 끼고 있지만 그 海岸에 있어서의 潮差가甚하고 後背地인 平安道地域의 沿岸平野가 人文이 크게 集中發達한 곳이 되지 못해 매우 不利하다. 한편 東北쪽의 關北地方에 있어서는 港口發達에 有利한 自然環境을 이루고 있으나 그 後背地가 좁은 沿岸平野이고 山地가 海岸에 急迫하고 있는 自然環境이기 때문에 참으로 對外發展面에서도 不利한 條件을 지니고 있다. 다음으로 南韓의 國防地政學的 位置價值를 살펴보면 南韓은 南向的인 位置價值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南韓은 韓半島의 南半을 차지하고 있으며 3面이 바다로 둘러있어 安定된 社會와 自然環境을 이루고 있다. 南韓地域은 隣接地域과 海上連結에도 不便이 없는 氣候環境이고 3面이 海洋에 둘러있는 溫和한 自然環境 또한 海洋發展에 有利한 地形的 要因들이 合하여 이 地域으로 하여금 東南아시아는 물론 東部 Asia 地域에 있어서는 主要한 地理的 位置價值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以上과 같이 南北韓의 國防地政學的인 位置의 特性을 살펴왔다. 여기서 볼 때 北韓은 北向

的인 地政学的 位置로서 国防·軍事的으로 볼 때 中共과 蘇聯에 對해 매우 結合的이고 긴밀한 相關關係를 맺기 쉬운 位置를 지니고 있어 우리의 安保에 큰 影響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⁵⁾ 對外的으로는 最近들어 急速히 增強한 蘇聯의 極東艦隊는 東北아시아 安保에 큰 威脅이 되고 있다. 蘇聯의 블라디보스톡에 基地를 둔 極東艦隊는 極東과 太平洋에서 그들의 影響力을 增大시키기 위해 勢力을 膨脹시키고 있다. 그 影響이 우리 韓半島에도 直接的 또는 間接的으로 미치고 있다는 것은 否認할 수 없다. 韓半島는 蘇聯이 反蘇包圍網을 뚫고 太平洋과 東南 Asia로 進出하기에 가장 理想的인 길목이다.¹⁶⁾

蘇聯은 北韓에 對해 影響力을 行事하는 것과 아울러 그들의 戰略的인 利益을 위해 韓半島의 獨占的 支配를 꿈꾸고 있다. 蘇聯의 對韓半島 政策은 韓國을 北韓에서 分離하여 따로 親共產化한다는 遠大한 目標의 「두개의 코리아」政策이다.¹⁷⁾ 蘇聯이 이 東南아시아를 지나 印度洋으로 進出하는데 있어서 그 進出路의 하나가 東海이다. 東海의 戰略的 價值를 보면 東海는 軍事的으로 南北韓이 對峙하고 있으며 蘇聯海軍의 主要 出入路이고 日本의 西海岸防禦海域이 되어 있다. 經濟的으로는 비록 大陸棚開發에 影響은 없으나 日·蘇 北傀

註 15) 洪始煥：南北韓의 国防地理学的 位置分析，安全保障 第87卷 第3號，1978，p42～43.

16) 權忠熙：韓半島에 對한 地政学的 考察，建大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0，p75.

17) 李相禹：蘇聯의 膨脹政策과 韓半島，共產圈研究，極東問題研究所，1980.4. p10.

의 200海里 經濟水域 및 漁業專管水域 宣布와 大和堆 等 主要漁場 이 있고 韓·日間の 獨島領有權紛爭이 있다. 따라서 戰略적으로 볼 때 韓·日·北傀에게는 軍事的, 經濟적으로, 美·蘇에게는 軍事的으로 重要한 海域이다.¹⁸⁾

蘇聯으로서는 東海를 손아귀에 넣어 自國의 潮水化 또는 內海化 하려는 Mare Nostro 運動¹⁹⁾을 展開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綠海인 東海를 支配하여 潮水化한다면 그 對岸인 韓半島를 支配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綠海自體는 隣接強國의 科學·技術의 能力에 힘입어 強力한 結合機能을 發揮할 수 있다.²⁰⁾

이런 蘇聯의 움직임에 對해 濟州島가 갖는 機能的인 面에서 본 位置價值는 첫째로 本島는 蘇聯太平洋艦隊의 基據에 隣接해 있다는 것이다. 東海를 거쳐 大韓海峽을 통과하여 東支那海와 太平洋으로 連結되는데 그 南下政策을 牽制 또는 沮止하는 前哨地로서의 機能을 發揮할 수 있다는 占이다. 두번째로 東海를 지나 南海를 거쳐 韓半島 西部地域 또는 黃海로 進出하는데 있어서 遮斷地役割을 할 수 있다는 占이다. 蘇聯으로서는 對中共包圍網을 構築하는데 있어서 韓半島가 가장 理想的인 地域으로 생각하여 支配 노력을 더욱 活發히 할 것이다. 中共도 마찬가지로 때문에 韓半島가 蘇聯의 손아귀에

註 18) 朴大鉉 : 韓半島 周辺海域에 있어서의 紛爭可能性 및 對策, 國防研究 第 22 卷 2 號 國防大學院 安保問題研究所, 1979, p316.

19) Mare Nostro 運動 : 어떤 바다를 자기나라의 內海나 潮水로 만 들려는 運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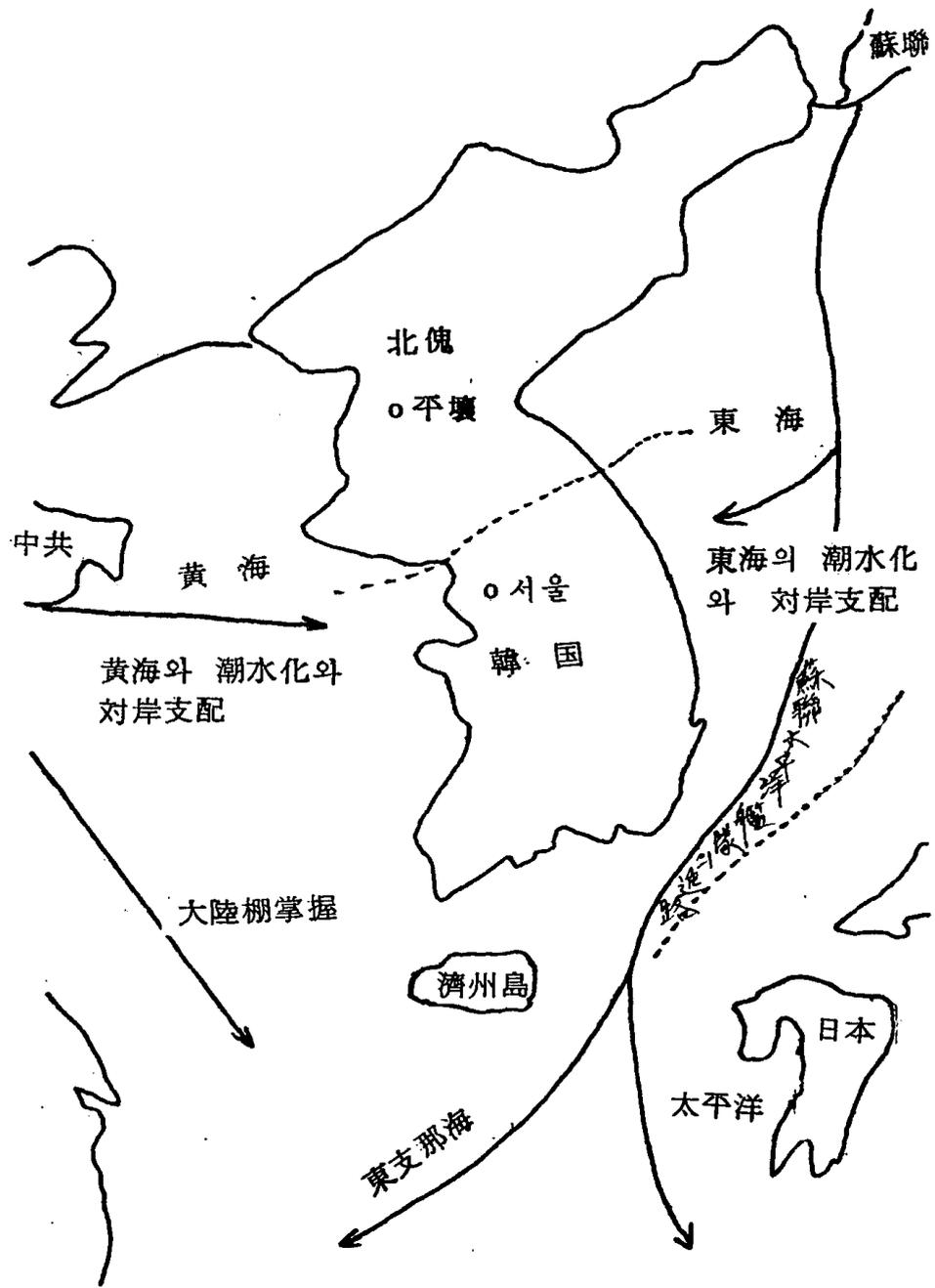
20) 任德淳 : 政治地理學原論, 一志社, 1977, p105.

들어가는 것은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蘇聯이 韓半島를 支配하기에 앞서 먼저 그들의 影響力을 韓半島에 行事할지도 모른다.

즉, 黃海를 그들의 潮水化 또는 內海化함으로써 對岸인 韓半島支配를 피할지 모른다.(그림 3) 戰略적으로 볼 때 黃海는 軍事的으로 北이 對峙하고 있으며 西海 5個島嶼는 北傀의 海上活動現況과 首都圈防禦를 爲해서도 極히 重要な 곳이다. 이에 對해 北傀는 海上軍事線과 經濟水域을 設定하여 西海 5個島嶼에 對한 管轄權을 主張함으로써 對美協商과 日本과의 關係改善에 利用하려 하고 있다.²¹⁾ 經濟的으로는 日·中共 漁業協定에 依한 排他的인 漁業禁止區域 軍事區域과 韓·日共同漁撈區域 및 韓國의 大陸棚開發區域 가운데 第7 鈹區를 除外한 K-1 부터 K-5 까지 5個鈹區가 있다.(그림 4) 中共과 韓半島 사이는 大陸棚海域이기 때문에 韓國이 이미 設定한 大陸棚海域을 自然延長論을 主張하는 中共이 차지하게 될 경우 韓國의 安保上 큰 威脅要素가 될 것이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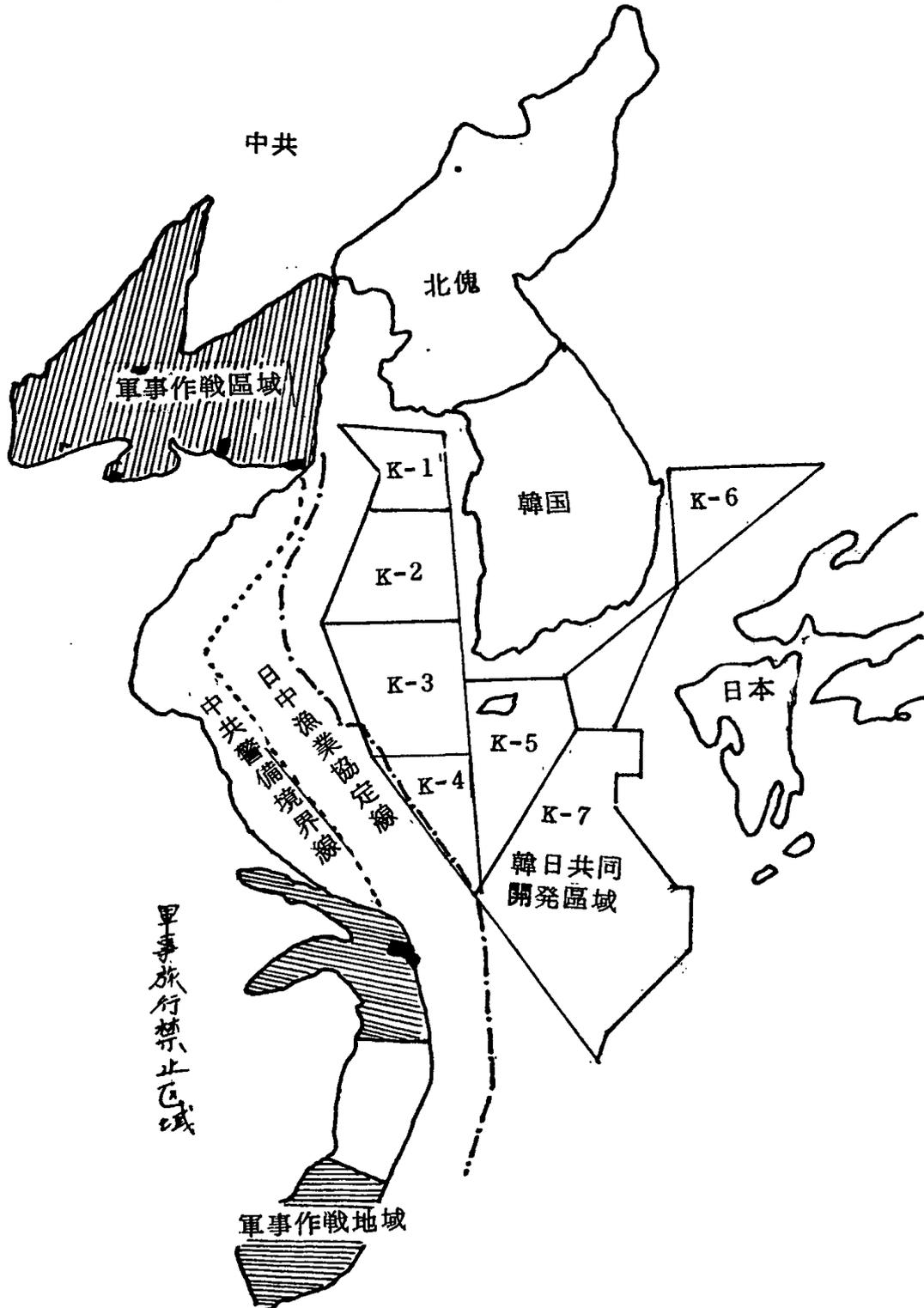
이같은 狀況에서 濟州島는 大陸棚의 延長部分에 包含되어 있어서 만약 大陸棚을 둘러싼 海洋紛爭이 일어날 경우 周辺國의 利害關係에 휘말려들 것은 分명한 事實이다. 本島의 位置價值를 論함에 있어서 安保·經濟的인 面에서 매우 重要的 것이 아닐 수 없다. 만약 韓國의 安保가 매우 深刻할 경우 本島는 基地로서의 機能을 發揮할 수 있는 位置上에 있다고 보겠다. 다시 말해서 前後方基地로서, 軍事戰略面에서 본 基地로서 뿐만 아니라 經濟的으로 볼 때도 海洋自源開發에 있어서 前進基地로서 適合하다고 하겠다.

註 21) 尹璟泰 : 北傀의 海上軍事境界線과 西海 5島 統一政策, 3卷3號, 1977, p132 ~ 147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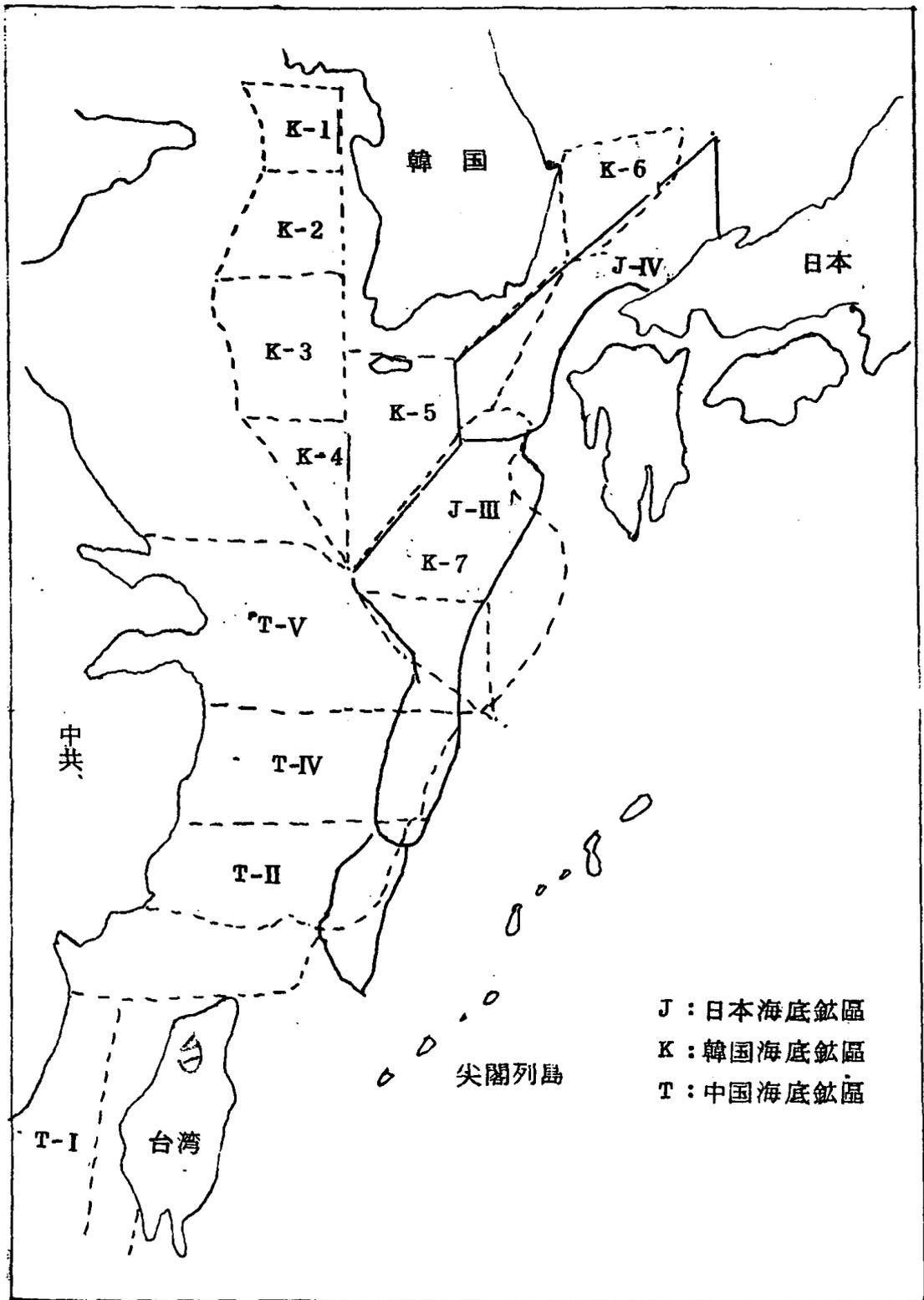
(그림 3) 韓半島 周辺의 海洋紛争可能性

(資料：朴大鉉，国防研究 第22卷第2號)



(그림 4) 濟州島와 東支那海의 相關圖

濟州島 周辺의 海底鉞區



J : 日本海底鉞區
 K : 韓国海底鉞區
 T : 中国海底鉞區

(그림 5) (資料動力資源部)

IV. 國防·地政面에서 본 濟州島의 特性

1. 島嶼로서 濟州島의 特性

本島는 섬의 自然地理的 分類에 있어서 洋島 (ocean island)에 屬하는 火山島로서 우리나라 最南端에 位置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本土와는 隔離性을 띠고 있으며 아울러 一種의 孤立性을 內包하고 있다. 本島는 8個의 有人島와 34個의 無人島가 本島에 包含된다.²²⁾ 政治的 (關係的) 位置에 있어서 本島는 우리나라 南方海上에 占位하고 있어 실제로 海洋發展과 東南아시아로 進出하는데 有利한 位置價値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太平洋으로 海上發展할 수 있는 據點이 될 수 있는 位置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 本島의 對太平洋的 位置價値에 對해서 살펴보기로 하면 우선 우리나라는 北太平洋의 尖端에 占位하고 있어 그 周邊的 位置는 大陸進出에 有利하다고 하겠다. 한편 內陸的 位置는 保守的인 것이 보통인 바 우리나라는 半島國이며 넓은 太平洋을 등지고 있으며 海上發展的인 位置를 지니고 있다. 即 우리나라는 溫帶海域에 占位하고 있어 年中 不凍港을 이루며 港口立地面에서 볼 때도 매우 有利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東海岸은 海岸線이 單調하고 港口發達에 不利하고 또한 西海岸은 海岸線의 出入이 甚하고 潮水干滿의 差가 甚하여 港灣立地에 不利하다.

實로 太平洋의 海洋的인 地理的 意義는 大陸海岸을 따르는 海上交通의 開發로 말미암아 여태까지 隔離的環境에서 점차 結合的인 環境

註 22) 島嶼誌 : 內務部, 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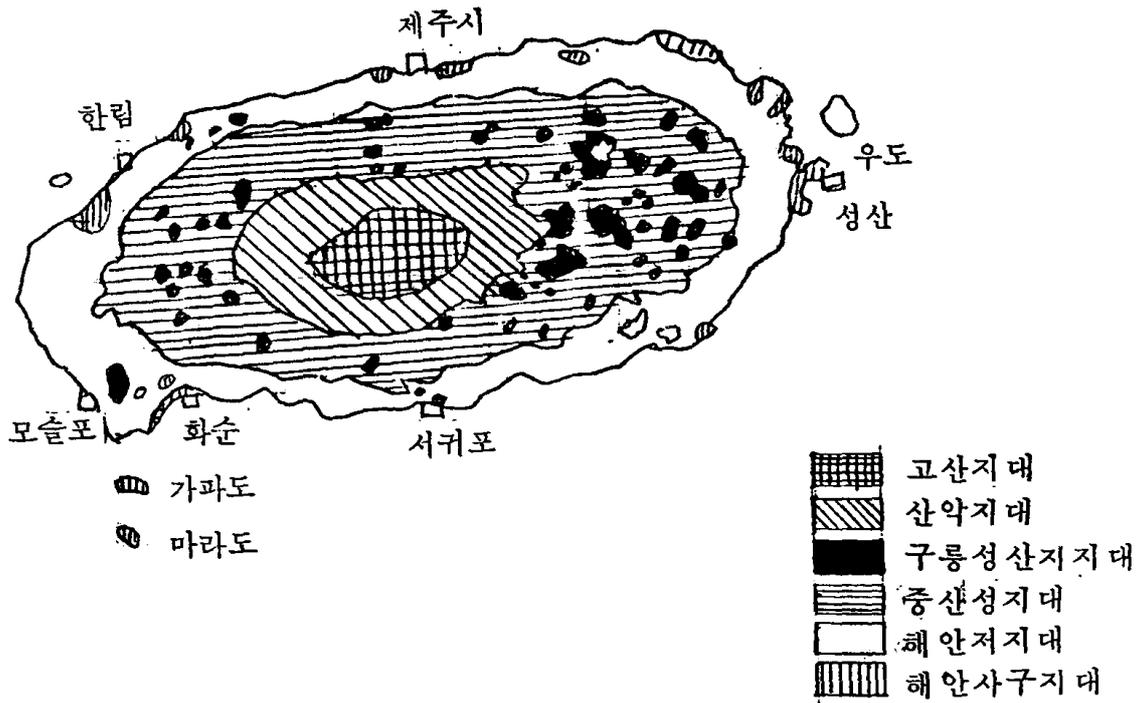
을 造成하기에 이르렀으며 앞으로 新時代의 結合은 大洋을 通해 이루어질 것이 確실하다. 오늘날 太平洋은 國際的인 結合場所가 되고 있는 現時點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太平洋에서 Asia大陸에 들어가는 重要한 基地가 되기도 한다. 이 基地에 가장 適合한 地域으로서 位置上으로 볼 때 그리고 여러가지 地形, 氣候, 港口立地 條件等 本島가 갖는 基地로서의 適合性을 地域構造面에서 分析하면서 論하기로 하겠다.

本島는 앞에서 말했듯이 傾斜가 緩慢한 커다란 하나의 Aspite型 火山島로 되어 있다. 地勢는 海拔高度에 따라서 特色을 달리하고 있다. 高度에 따라서 海岸低地帶, 丘陵性地帶, 山岳地帶, 高山地帶로 나뉜다.(그림 6) 海岸低地帶에는 많은 砂丘가 分布하고 있는데 主로 北西風의 影響을 많이 받는 北斜面에 더 發達되었다.²³⁾ 本島의 斜面을 보면 南斜面은 北斜面보다 陸起量이 많기 때문에 傾斜가 急하고 海蝕 斷崖가 많이 發達되었다. 海岸은 單調하여 出入이 적으며 海底에 岩礁가 많아 天然의 良港發達에 障礙的 條件이 되어 왔다.²⁴⁾ 本島의 海岸線은 總 延長 253 km로 되어 있다. 비록 天然의 良港發達이 微弱하지만 開發에 依한 發達可能性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本島에서 主要한 港口는 濟州, 西歸浦, 城山, 翰林等을 들 수 있다. 濟州는 本島 唯一의 開港場이다.

이는 古代로 부터 利用해 온 山地港을 築港하여 改造한 것이다. 그리고 濟州 港을 通해

註 23) 姜相培 : 濟州島 南北斜面地形의 比較研究, 建大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77, p40.

24) 姜錫午 : 新韓國地理, 새날사, p259.



(그림 6) 濟州島의 地勢分類

濟州-木浦間 (90 마일) , 濟州-釜山間 (169 마일) , 濟州-楸子島間 (30 마일) 에 每日 定期船이 運航되고 있다. 最近에 들어서 濟州開發에 힘입어 港口開發이 活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大型船舶이 入港可能하도록 그 開發이 進前되고 있다. 西歸浦는 本島 唯一의 天然的 良港이며 高麗以來 鎮城으로 發達하기 시작했다. 本港은 우리나라 最南端에 位置하고 있고 太平洋에 直接 接하고 있어 南方進出에 있어 有利한 位置價值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翰林港은 本島의 西南端에 位置하고 있으며 飛揚島가 冬季의 北西 季節風을 막아주고 水深이 깊은 天然的良港이다. 그리고 近海漁業, 遠洋漁業의 根據地로 發展되고 있다.

城山浦는 濟州市에서 東回線에서 50 km 떨어진 本島의 東端에 位置한 城山半島에 자리잡고 있다. 對岸의 小島 (牛島) 가 가로놓여 天然的 良港을 이루고 있다.

옛날에는 有明한 港口였으나 濟州港이 築港된 後 襄退하였으나 現在에는 遠洋漁業基地로 重要性을 갖고 있다. 이와같이 本島에 分布된 主要港口別 特色을 살펴봤다. 비록 本島는 海岸線이 斷調하여 天然의 良港이 많지 않지만 本島는 四面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고 相關的 位置面에서 볼 때 對日本·對中共·對太平洋으로 進出하는데 있어서 매우 適合한 位置價值를 지니고 있다. 위에 言及한 港口이 외에도 港口로서 有利한 條件을 갖고 있는 곳이 있는데 和順港이다. 비록 지금 港口로서의 利用度는 크지 않지만 本島에서 가장 有利한 條件을 갖춘 天然的인 良港이다. 本島 南濟州郡의 南西部에 位置하고 있는 和順港은 水深이 깊고 넓은 面積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本

島가 自由貿易港이 될 경우 또는 南防進出에 있어서 매우 適合한 港口로서의 位置價值와 立地條件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本島는 本土의 다른 地域들과는 달리 매우 溫暖한 氣候帶를 이루고 있어서 年中 不凍港을 이루고 近海에는 暖流인 쿠로시호가 北上하고 있어 魚族이 豊富하며 좋은 漁場을 이루고 있다.

本島는 많은 觀光客이 몰려오는 國際的인 觀光地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事實이다. 本島가 國際觀光地가 됨에 따라 本島는 航空機의 中間經由地가 될 展望이 밝은데 最近들어 그 可能性이 짙어지고 있다. 그럴경우 中共으로 進入하는 航空機가 本島를 經由할 수도 있고 東南亞로 가는 航空機가 本島를 經由할 수도 있다. 그러면 本島는 海上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航空을 통한 對外進出의 基點이 될 수 있다고 본다.

現在 本島와 他地域間을 連結하는 航空路는 濟州·서울間, 濟州·釜山間, 濟州·光州間, 濟州·大邱間·濟州·麗間, 濟州·晋州間이고 日本의 오오사카間에 運航하고 있는데 앞으로 本島를 통한 對아시아 路線이 開設될 展望이 크다고 볼 수 있다.

2. 基地로서의 濟州島의 地域性

濟州島는 本土와 隔離된 戰略的 位置價值를 지니고 있다. 本島는 Asia大陸에 陸續된 半島에서 隔離된 島嶼이므로 옛부터 本土인 韓半島와는 많은 異質的인 特性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隔離된 地理的 位置는 대체로 有利한 環境을 造成해 주었다. 即, 南北韓이 斷絶되고 있는 戰時下나 다름없는 現時局에 있어서 本島는 戰略的

重要性을 지닌 各種 基地로서 有望하다고 볼 수 있다. 位置의 重要性은 政治的 狀況에 따라서 變化한다. 어떤 狀況下에서는 國家나 國家의 여러地域은 戰略的 重要性을 要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戰略的 重要性을 要하는 것은 戰略的 基地를 뜻한다.²⁵⁾ 特히 島嶼는 戰略基地로서 機能을 發揮한다. 英國과 프랑스, 美國은 많은 戰略基地를 갖고 있다. 英國은 지브롤터, 미노르카(1956년에 다시 잃음), 말타, 사이프러스, 팔레스타인, 키프러스, 아덴, 트리코말리, 싱가포르, 케이프타운, 모리셔스, 홍콩, 포틀랜드를 掌握했다. 그리고 프랑스는 타이피, 뉴우칼레도니아, 오보크메이요트 등을 차지했다. 美國은 푸에르토리코, 버진諸島, 관타나모 등을 차지했고 特히 하와이, 마리아나, 구암 등은 太平洋에서의 美國의 戰略 및 國家利益과 밀접하게 關係되어 있는 섬들이다.

하와이는 美國西部防禦의 尖兵구실을 하는 것이고 웨이크, 메리아나 구암島 등은 하와이-필리핀間的 勢力線(power line) 保護 및 西部防禦를 爲한 重要基地들이다.(그림 7) 具體적으로 보면 英國은 지브롤터~수에즈運河~에덴~실론~싱가포르를 잇는 線을 重要時했고 프랑스는 本國南端~알제리를 잇는 線을, 美國은 本土~하와이~파나마運河~카리브海의 諸基地를 잇는 線을 各各 勢力線構造의 中心線으로 잡았다. 그런데 以上 言及한 基地들 가운데 많은 섬들이 基地로서 機能을 發揮하고 있다. 基地가운데 特히 戰略的 基地로서의 價值가 크다. 戰略基地는 單獨的 成長하는 것은 아니고 政治的·商業的·膨

註 25) Pounds, N.J.G: Political geography (New York) 1963, p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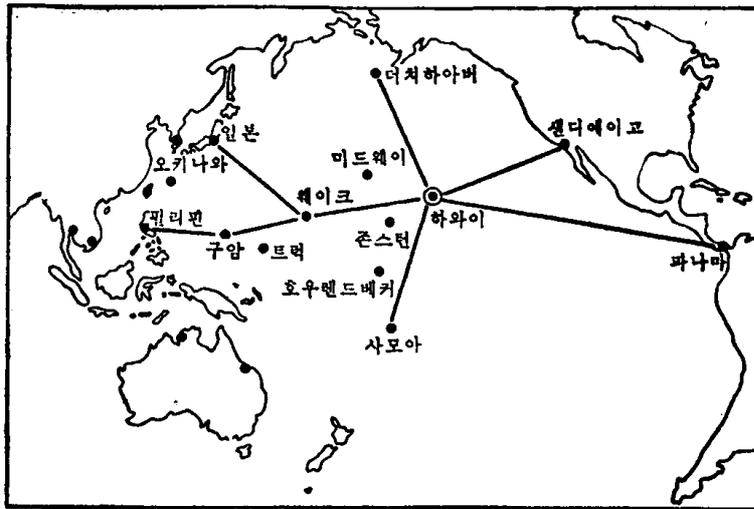


그림 7. 太平洋의 美軍基地

脹의 目的들과 相互結付됨으로써 더욱 그 機能發揮가 活發해지는 것이다.²⁶⁾

日本은 韓半島를 大陸侵略을 爲한 발판으로 前進基地化했었고 太平洋戰爭을 爲한 兵站基地化했었다. 어떤 國家가 戰略基地를 確保한다는 것은 自國의 航路(生命線, 勢力線)保護, 他國과의 鬭爭에 있어서의 國力強化, 隣接他國에 對한 政治的 壓力增大 等に 有效하게 쓰인다.

이런 基地들은 작은 面積의 地域이나 島嶼에 設置된다. 本島에 있어서 戰略的인 位置價值에는 두가지의 特性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²⁷⁾ 첫째로 우리나라 西南端에 있는 木浦에서 南쪽 142 km 海上에 있어 國土의 南端的 位置일 뿐 아니라 本土와 隔離된 安全한 戰略的 位置에 있다고 하겠다. 이런 隔離된 地理的 位置때문에 國

註 26) 任德淳: 政治地理學原論, 一志社, 1973, p222.

27) 洪始煥: 濟州島의 後方基地論, 濟州島 第 40 號, 1969年, p153.

軍의 豫備基地로 適當할 뿐만 아니라 陸軍의 軍事訓練基地, 海軍의 海上防衛基地, 空軍의 戰略空軍基地로도 有利하다고 보겠다. 安全防衛的인 見地에서 長期的인 基地設計는 隔離된 大島嶼地域이 適當한 것이며 軍需戰略物資의 兵站基地로서도 매우 重要的 것이라고 하겠다.

美國의 各種 實驗基地가 먼 太平洋의 孤島나 人口가 稀薄한 山間 僻地에 占位하고 있는 點을 考慮해 볼 때 本島의 國防的 位置는 매우 重要的 戰略的 位置價值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번째 特性은 本島의 海面으로 接境하고 있는 國防的 位置를 이루고 있다. 즉, 本島는 東西길이 73 km, 南北길이 31 km, 海岸線의 總길이 253 km에 達하고 있어 우리나라 最大의 面積을 이루는 섬이나 海岸線은 單調하여 出入이 甚하지 않다.

이와같은 單調한 海岸線의 構造와 높이 1,950 m의 漢拏山頂을 中心으로 하는 Aspite 型 火山島의 單純한 地形을 安全防位面에서 볼 때에 매우 有利한 條件이 되고 있다. 그러면 本島가 基地로서의 機能을 發揮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여러 問題가 惹起된다. 基地로서의 役割을 하기 위해서는 軍需品の 備蓄, 軍需品生産能力, 軍需品 製造原料의 可用性 生産獲得 또는 輸送過程에서 惹起되는 難關의 脆弱性을 克服하는 것도 包含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基地에 따른 港口와 海岸에 對한 考慮事項으로 荷役能力, 港口 및 海岸出口의 能力과 數 海流와 水探, 海岸傾斜度, 繫留條件, 停泊 및 對岸露出과 氣象 等の 海岸條件이 考慮되어야 하겠고 基地建設에 따른 勞動力과 신선한 生鮮物과 적절한 飲料水를 補給할 수 있는 荷役施設, 娛樂施設, 補給品 貯藏施設 修理施設의 有無도 考慮되어야 하겠다. 以上 本島

가 갖는 戰略基地로서의 位置價值 및 그 特性과 그에 따른 問題에 對해 考察해 봤다. 이제 우리나라는 經濟的으로 先進國際列에 들어 서게 되었고 国力이 强하게 되어 對外로의 進出이 活發하게 이루어 져서 世界속의 韓國을 심게 되었다. 옛부터 바다를 支配하는 者는 世界를 支配한다고 했다. 이제 우리나라도 바다를 통해 對外進에 힘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海洋으로의 進出을 爲한 出口는 位置的으로 볼 때 南 쪽으로 開方되어 있다. 그러므로 本島는 海洋進出의 出口地域에 位置하는 有利한 條件을 갖고있다. 보겠다. 即 海洋進出의 前方基地로서의 位置價值를 갖고있다. 다시 말해 本島는 海洋發展面에서 볼 때 前方基地로서의 重要한 位置價值를 發揮한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世界의 여러나라들이 海洋力을 擴大할려고 노력하고 있다.

各國이 海上勢力을 擴大할려고 힘쓰는 것은 그만큼 바다는 国力伸張에 有利한 場所를 提供해 주고 있다. 要컨데 海上勢力은 海洋이라는 環境利用하여 國家繁榮을 누리는데 寄與하는 모든 力量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即, 오늘날의 資源經濟의 開發時代에는 海上勢力을 軍事面과 海運面에만 局限시키지 않고 海洋利用 能力을 國家的 次元에서 統合 調整한다는 見地에서 海上勢力을 海軍力과 그 其他 海運力과 造船 및 修理能力, 水産能力, 海底資源開發能力, 海洋探查 能力 等 諸構成要素를 網羅한 것이다.²⁸⁾ 우리나라도 資源面에서 볼 때 不足한 狀態이므로 海底資源開發이 必要하다. 特히 濟州島 周邊

註 28) 李善浩：超强大國의 海上戰略과 海上勢力競爭의 推移，國防研究 第 20 卷 第 1 號 國防大學院 安保問題研究所，1977, p36.

海域은 大陸棚이 發達되어 있어서 石油埋藏可能性이 매우 높은 地域이다. 이런 見地에서 볼 때 本島는 資源探査 및 開發에 있어서 重要な 基點이 된다고 볼 수 있다. 以上과 같이 本島는 地理的 位置로 보아 南北으로 兩斷된 現狀況에서 安全衛位面에서는 後方基地로서의 價値를 지니고 있고 또한 海洋發展面에서 볼 때는 前方基地的 價値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V . 結 論

大陸政策을 堅持하는 時代에 있어서는 島嶼는 陸地에서 떨어져 있는 關係로 国土防衛에 有利하므로 獨自적으로 그리고 自立的인 安寧秩序를 維持할 수 있었다. 即, 英國의 경우以外에도 日本의 例를 들면 우리 韓半島가 大陸으로 부터 갖은 干涉과 壓力을 받았음에 反하여 日本은 隔離된 地理的 位置때문에 安定된 環境속에서 自立的인 經濟發展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海洋의 隔離的인 性格도 그 當時에는 外敵侵入을 冒免할 수 있는 有利한 特性을 지니고 있었으나 海上交通의 發展에 따라 이들의 性格은 漸次 有機的인 連結的 性格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性格의 變化는 濟州島로 하여금 韓半島와의 有機的인 相關的인 關係를 맺게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即, 本島는 周圍의 廣大한 海洋으로 둘러싸여 對 海洋進出에 있어서 有利한 位置價值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東南아시아를 비롯한 國際的 進出이 活發하게 되므로 濟州島는 南方發展에의 根據地로써 有利한 地理的 位置價值를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安保, 戰略面에서 周邇勢力의 對海洋 擴大力을 沮止할 수 있는 位置特性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經濟的으로 볼 때 海底資源開發의 前進基地로서의 機能을發揮할 수 있는 有利한 位置價值를 지니고 있다고 보겠다.

ABSTRACT

A GEOPOLITICAL STUDY OF JEJU ISLAND

Choi, Dong Suck

Jeju island is a volcanic one which lies to the southern—
most parts of Korea.

The territory of Jeju island lies between 33.30 and 34 de-
grees North Latitude and between 126.08 and 126.58 degrees east
longitude and it is characterized by mild climate.

In view of physical geographical location it belongs to the
insular location and in view of relative location it lies in the
gate to the Pacific Ocean and to the East China Sea to the south
and it neighbors with Japan to the east through a narrow strait
called Taehan strait and neighbors with China Proper to the west
and it is related with the Korean peninsula to the North.

Historically, due to its geographical importance it was the
place of Sambyulcho's resistance during the Korea dynasty and it
was the Japanese base of attack to China and to the Pacific Ocean
in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domination.

It has important locational and geopolitical value in the aspect of ocean exploration.

In the aspect of ocean development, it has important locational value of geopolitics and strategy and it has the value of important strategic base in relation to Korean peninsula, Japan and the mainland China.

And it can exhibit the function as an advanced base for exploitation of submarine resources.

So it has important value as the base in the rear in view of national security and it has important geopolitical value in view of Ocean exploitation.

参 考 文 献

1. 姜錫午, 新韓國地理, 새 글사, 1974.
2. 權寧植外, 国防地理, 博英社, 1977.
3. 金源国 (訳), 蘇聯의 軍事戰略, 兵学社, 1979.
4. 吳洪哲, 聚落地理学, 教学社, 1980.
5. 陸軍士官学校, 軍事地理, 陸軍士官学校, 1980.
6. 李命植, 蘇聯의 東南亞政策, 法文社, 1972.
7. 李相禹, 韓國의 安保環境, 書香閣, 1972.
8. 任德淳, 政治地理学原論, 一志社, 1973.
9. 任德淳 (訳), 政治의 地理学, 一志社, 1974.
10. 崔 榮, 現代核戰略理論, 一志社, 1977.
11. 洪始煥, 国防地理, 陸軍士官学校, 1962.
12. J.R.V. Prescott, Political Geography, Methuen, 1971.
13. Norman G. Pounds, political Geography, McGraw-Hill Book CO, 1963.
14. 權忠熙, 韓半島에 對한 地政學的 考察, 建国大学校 地理学科 碩士 學位論文, 1980.
15. Rolph N. Clough (訳) 崔炳甲, 韓半島에서의 戰略抑制와 防衛, 国防研究 第19卷 第2號, 1976.
16. 井眞, 美國의 對아시아戰略과 東亞, 国防研究 第2卷 第1號, 1978.

17. 朴大鉉, 韓半島 周辺海域에 있어서의 紛争可能性 및 對策, 国防研究 第22卷 第2號, 1979.
18. 吳洪哲, 濟州島의 聚落에 觀한 地理学的研究, 慶熙大学校 大学院 地理学科 博士学位論文, 1974.
19. 유시중, 韓半島 周辺國의 海洋力에 觀한 研究, 1979.
20. 尹環泰, 北傀의 海上軍事境界線과 西海5島, 統一政策 3卷, 1977
21. 李善喆, 日本의 防衛力 增強이 韓國安保에 미치는 影響, 延大行政大学院 碩士學位論文, 1978.
22. 李善浩, 超强大國의 海上戰略과 海上勢力競爭의 推移, 国防研究 第20卷 第1號, 1977.
23. 任德淳, 韓國休戰線에 對한 政治地理学的研究, 地理学, 第7號, 1972.
24. Charles. A. Sorrls, 西太平洋 및 東北亞의 軍事的配備, 国防研究 第20卷 第2號, 1977.
25. 洪始煥, 軍需産業 育成面에서 본 濟州島의 食品加工業開發策, 陸士論文集. 1968.
26. 洪始煥, 南北韓의 國防地政学的 位置分析, 安全保障 第87卷, 1978.
27. 洪始煥, 濟州島의 後方基地論, 濟州道 第40號, 1969.
28. 洪始煥, 安保面에서 본 韓國의 相關的 位置論, 安全保障, 第86卷 第2號, 1978.
29. 島嶼誌, 內務部, 1973.